현대소설연구(제81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1.03.81.177

# 이행기 정의와 비극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양 순 모*

**요약**

본고는 87년 민주화 이후, 그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 정의(正義)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문학이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을 한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 명명되는 새로운 사회 정의 정립 문제는, 요컨대 '과거청산'의 과제 앞에서 피해와 가해, 보복와 용서와 같은 좀처럼 종합 불가능한 이분법에 교착되어 있다. 어느덧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행적 정의는 '화해'를 키워드로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부르짖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 정의는 '응보적 정의'에 조차 미달해있는 셈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공동체 수준 내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둘 사이 존재하는 아포리아 가운데, 이 두 정의 사이를 새롭게 매개할 '개인' 내적 수준의 응징과 용서, 책임의 한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와의 부단한 마주침 속에서 정립되는 '사회적 수준'의 정의 정립 과제에 앞서, 저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태도'가 섬세하게 고찰되었을 때, 이는 기존 이행적 정의의 이분법적 교착을 넘어설 수 있는 예비적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최윤의 소설「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재독을 통해, 국가 폭력 이후의 삶 가운데, 한 개인 내에 존재하는 부채의식을 비롯, 스스로에 대한 과잉된 감정들과 관련하여 이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나아가 이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나가는 특수한 한 과정을 살펴본다. 본고는 '비극'의 태도라 명명할 수 있을 위 과정이야말로 오늘날 이행적 정의의 새 국면을 위한 한 계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 사회 정의 정립 문제에 있어 문학 고유의 한 기능을 증명하고자 한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이행기 정의,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비극,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목차

1. 서론
2. 부인의 문화와 문학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선행 연구 검토
3. 이행기 정의와 비극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87년 민주화 이후, 그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 정의(正義)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문학이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을 한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 명명되는 새로운 사회 정의 정립 문제는, 요컨대 '과거청산'의 과제 앞에서 피해와 가해, 보복와 용서와 같은 좀처럼 종합 불가능한 이분법에 교착되어 있다. 어느덧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행적 정의는 '화해'를 키워드로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부르짖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 정의는 '응보적 정의'에 조차 미달해있는 셈이다.[1)]

1)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회복,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관계회복을 강조한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는 북미와 유럽에서 1970년대 소년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가 최근에는 아예 형벌에 대한 대안으로 널리 고려되고 있다. …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국가 중심적 응보형 사법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체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했지만, 반대로 정치적 제노사이드와 같은 정치적 폭력의 문제에서는 대규모 인권침해의 배후였던 정치권력, 패권세력의 책임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승, 「화해의 문법」, 김동춘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4, 169-171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들의 화해를 도모하며 새로운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는 작업은 일견 그간의 폭력과 가해 책임을 망각하고 섣부른 평화를 현실화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국가 폭력의 주요 책임자들이 충분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가운데, 공동체 '정의' 구축의 근본이자 오랜 본능일 "응보감정retributive emotion"[2]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대규모 폭력 사건과 점차 멀어져 가는 오늘날,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구성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은 구성원 다수의 동의와 합의에 의한,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정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3] 일베 및 신보수주의와 같이 기존 역사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비롯,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외면하는 '부인denial의 문화'가 무시할 수 없는 한 '문화'로 자리잡은 이상[4], "과거청산"이라는 "공동체가 써 내려가는 대하

2)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2(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129면.

3) "5.18의 진실은 … 현실적으로 사회적 부인이나 왜곡 행위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다. 특정 사건의 진실이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은 5.18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사적이다." (정근식,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 『경제와사회』 126호, 비판사회학회, 2020, 37면.)

4) 부인 문화에 대한 일반적 양상 및 한국에서의 양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장들을 참조. "전 사회가 집단적 '부인'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 무엇을 생각하라거나 생각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금지된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도, 사회가 어느 선까지 기억하고 시인할 것인지가 불문율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 … 이런 '부인'은 국가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지만 먼저 시작되면 알아서 살아남아 가지를 뻗어간다. 사람들은 자기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멀리 떨어진 다른 사회, 즉 '그런 데'서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탠리 코언,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옮김, 창비, 2009, 64-65면.)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가 우연히 일어난 문명 속의 참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에 눈이 멀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김명희,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 웹툰〈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의 감정생태계」, 『기억과전망』 3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59면.)

소설"[5]은 보다 설득적인 서사를 통해 합의의 정의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행기 정의는 '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것을 최우선적 작업으로 삼아야 하지만, 사법적이고 도덕적인 죄와 책임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호한 경계에 놓인 오늘날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하여, 이들이 수행해야 할 '정치적 용서'와 '정치적 책임'의 문제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은 자들로서 혹은 그들의 후손으로서, 일정의 죄와 책임을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죄의식과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해야할지에 대한 방안이 충분치 않다면, 이는 또 다른 불필요한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6] 만약 저 갈등이, 오늘날 '부채의식'에서 기인한 '운동 문화' 와 이에 저항하는 '반지성주의'적인 '부인 문화'라는 양분화된 대립적 구도 형성에 상응하고,[7] 대립의 결과가 번번히 둘 사이의 퇴행적 타협들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부채의식을 생산적인 참여의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

5)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6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22면.

6) 부채의식과 같은 '죄의식'은 공동체 정립의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이후 그 죄의식이 충분히 처리되지 않을 시, 이는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가장 주요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관련하여 지그문트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박찬부 외 옮김, 열린책들, 2004; 에티엔느 발리바르, 「『신학정치론』:민주주의 선언」,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2014 참고.

7) "5월 운동의 원천은 1980년 5월의 진실과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의식이다. 광주 시민들에게는 5월 27일 도청의 새벽을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광주 외부의 국민들에게는 그 열흘간의 투쟁을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거나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역사적 책임의식이 발생한다." (정근식, 앞의 글, 38면.) 그러나 이와 같은 '부채의식'은 오늘날 손쉽게, 소위 민주화된 "국가"에 의해 '기념화', '대리화'되어 역사의 "사태성"을 지우는 "말소"의 길을 걷거나(김항), 91년 5월 이후 "비혁명의 시대"(김정한)에 "전향"을 거쳐 "반지성주의"와 부인denial의 문화로 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하여, 김항, 「국가의 적이란 무엇인가」,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 김정한, 「1990년대 전향 담론과 반지성주의」, 『비혁명의 시대 :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참고.

> 용서는 보복의 정반대이다. 보복은 죄에 대항하는 반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처음 잘못된 행위의 결과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과정에 묶이게 되어 모든 행위에 내재하는 연쇄적인 반동을 허용하게 되며 그것은 무한한 과정이 된다. … 이와 대조적으로 용서의 행위는 결코 예견할 수 없다. 용서는 예기치 않은 형식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반동이다. …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 모두를 그 행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예수의 용서의 가르침에 포함된 자유는 보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보복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결코 끝이 나지 않는 행위과정의 잔인한 자동운동 안에 가둔다.[8]

과거청산과 관련한 응보의 정의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영원히 결과의 희생자로 남아 있게" 되고, "행위로 인한 결과가 '행위action'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경우, 우리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요컨대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운동'이 아닌 자유를 창설하는 '정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용서'와 '화해'에 조심스레 관심을 가져야 한다.[9]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주장이 아직은 성급하고, 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을 위험한 주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용서와 화해에 주안을 맞춘다하더라도 "사회적 응징을 전제로 해서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뒤따"[10]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위와 같은 공동체 수준 내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둘 사이 존재하는 아포리아 가운데, 이 두 정의 사이를 새롭게 매개할 '개인' 내적 수준의 응징과 용서, 책임의 한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와의

8)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305-306면.

9) 홍원표, 「정치적 책임과 용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이해」, 『21세기정치학회보』 18(2), 21세기정치학회, 2008, 15-16면.

10) 이영재, 「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 『정신문화연구』 38(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30면.

부단한 마주침 속에서 정립되는 '사회적 수준'의 정의 정립 과제에 앞서, 저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태도'가 섬세하게 고찰되었을 때, 이는 기존 이행적 정의의 이분법적 교착을 넘어설 수 있는 예비적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국가 폭력 이후의 삶 가운데, 한 개인 내에 존재하는 부채의식을 비롯, 스스로에 대한 과잉된 감정들과 관련하여 이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나아가 이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나가는 특수한 한 과정, 요컨대 '비극'의 태도라 명명할 수 있을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태도로서 비극이 오늘날 이행적 정의의 새 국면을 위한 한 계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 부인의 문화와 문학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선행 연구 검토

최윤의 중편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는 80년 5월 광주의 생존자 및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5.18 40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문학 연구자 및 비평가에 의해 새로운 해석들이 제출되고 있다. 80년 5월 광주를 현재화하기 위한 노력은 창작뿐 아니라 해석과 독서의 영역에서도 거듭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학작품을 매개로한 문화 정치적 해석 투쟁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입법과 사법 문제 중심으로 진행된 이행기 정의 논의[11]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의 구축이 요청되는 오늘날 국면에[12]

11) "청산의 형식은 주로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위원회' 설치 수순을 밟았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입법과정은 거의 예외 없이 정치세력 간 '담합'과 '타협' 속에 진행되었고, 과거사 청산을 정부 주도로 획일화하는 부작용을 동반한 것이기도 했다." (이영재, 위의 글, 123면.)

12) "(이행기 정의의) 첫 번째 국면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즉 전후 국면이다. …뉘른베르크 법정과 도쿄 법정이 제1국면의 이행기 정의를 상징한다. … 두 번째 국면은 정치적 이행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작가의 소설 집필 배경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프랑스 유학 중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80년 5월 광주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행기 정의 정립에 과제에의 직접적인 연루에 공감하기 어려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지점을 시사한다.

> 이 중편소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원죄의식에 시달리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심리적 바이러스와 같아서, 읽고 난 그 누구도 작품 속의 소녀에 대해, 그 소녀가 체험한 5월에 대해, 화자들인 '우리'나 '장'과 같은 **부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윤 스스로가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감염의 소설이다.[13]

"문학이 5월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아래 전개되는 위 비평은 80년 5월 광주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더욱 유효해진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감염"과 "부채의식", "원죄의식"과 같은 주제어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작가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위 소설을 통해 "비극적 경험의 한 주인공이 산하를 가로지르면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사적 사건의 은밀한 감염"[14]을 전달받는 것이다. 즉 감염된 독자들, 살아남아 "이 소설을 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식에 가까운 부채의식을 건네받는 가운데 "감염의 경로를 소설 밖의 모든 장소와 시간들 속으로 무한 확장"[15]하는 매개가 되어, 80년 5월 광주를 '오늘

---

의 격변기인 1980년대 탈냉전기이다.…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소위 '제3의 물결'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을 단행하였다. … 제3국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행기 정의의 관철을 목표로 하는 최근 국면이다. 이행기 정의의 안정적 관철, 즉 이행기 정의의 확장과 규범화라는 문제가 이 시기의 핵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앞의 책, 141-143면.)

13) 김형중, 「세 겹의 저주」(2000), 『켄타우로스의 비평』, 문학동네, 2004, 90면.

14) 최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 문학동네, 1994, 100면.

날'의 문화로 현재화한다. 그러나 보다 복잡해진 오늘날의 맥락 가운데, 위와 같은 문학적 매개의 실질적 '효과' 및 그 내용으로서 '부채의식', 그리고 이 내용의 전달 과정에서 재현되는 '폭력' 및 '주체화'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 5월 광주는 내내 법을 작동시키는 국가권력과, 화폐의 논리로 '보상'을 환원시킨 자본주의 장치 속에서 내내 유동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5월 광주'를 둘러싼 부정과 폄훼의 논리-정동 회로 역시 이 구조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고 유통된다. … 당시 공무원 학원가에 5·18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를 선동하는 유인물의 문구는 정확히 우리가 사는 세계 구조의 취약함이 무엇인지 공략한 것이었다. 피해 보상과 진상 규명을 가능케 한 조건들이 때때로 '5월 광주'를 역공하는 논리-정동 회로의 자원이 되는 이 아이러니는 김형중이 말한 "광주 2세대들이 처하게 될 정치적 아포리아"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16]

먼저 저 문학적 매개의 실질적 효과와 관련하여, 오늘날 독자는 소설이 전달하는 감염적 효과보다도, 이를 억압하고 해소해버리는 일상의 두려움에 스스로가 훨씬 더 노출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공무원 학원가에 5·18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를 선동하는 유인물의 문구"가 유행할 때, 이에 혼란한 마음을 가진 수험생을 향해 오늘날 그 누구도 손쉽게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의 문제보다도 생활의 문제가 우리에게 보다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5월 광주 및 관련 소설에 깊이 감염된 이들은 역사를 오늘날 다시 현재화하고 재보편화하기 위한 여러 해석적 노력을 수행하며, 어떤 가능성들을 증명하고자 한다.

"5월 광주를 둘러싼 부정과 폄훼의 논리-정동회로"의 한 결과일 반지성

15) 김형중, 「세 겹의 저주」, 앞의 책, 93면.

16) 김미정, 「미끄러지고, 다른 힘을 만들고, 연결되는 것들 : 2020년에 생각하는 '5월 광주'와 문학의 방법들」, 『문학들』 59호, 2020, 30면.

주의적 부인 문화를 충분히 인지하며, 위 소설을 통해 5월 광주를 오늘날 다시 현재화하고자 하는 한 해석은, 5월 광주를 오늘날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공유하는 비근한 사태들과 연결함으로써, 오늘날 독자들에게 유효할 정동적 효과를 시도한다.[17] 예컨대 오늘날 독자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정동적 효과를 야기하는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80년 5월 광주 사이의 관계를 거듭 연결하고 상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위 해석은, 다만 그 연결-상상의 방법과 관련하여, 오늘날 독자들이 예상하고 기피하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 예컨대 "투철한 신념과 판단력, 역사적 사명감"으로부터 벗어나, "모두 누군가가 부당하게 죽임당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닐 측은지심과 분노"[18]의 한 연결이고자 한다.

> 어느 강변에서 소녀와 우연히 마주친 뒤부터 한동안 그녀와 함께 지낸 '장'이라는 인물의 변화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처음 '장'에게 소녀는 (공포와 구타를 유발하는 대상이었으나 : 인용자) … 그러나 '장'은 어느새 "무엇이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는 채" 소녀의 고통을 느끼고, 마침내 "그녀가 바로 그 핏빛의 소용돌이의 도시, 그 소용돌이의 한 중간에서 이곳에까지 내던져졌으리라는 것"을 직감한다. … 소설은 '장'이라는 인물을 또 다른 증언자로 재창조함으로써 그 증언의 지평을 확대시키려한다. … (그리고) '우리'를 만난 '장'은 소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이 소녀로 인해 또 다른 증언자가 되는 순간이다. 동시에 그렇게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소녀를 '장'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 이제 증언의 연쇄는 추모의 순간에 가까워진다 … 최윤의 소설에서 증언의 역량과 몫은 소녀를 비롯해 '장'과

17) "5월 광주는 축자적으로 1980년 5월과 광주라는 시공간적 제약에 갇히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결, 관계들이 상상되고 고안되어야 한다. … 5월 광주와 동일한 구조 속에서 상황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1980년 5월뿐 아니라 지금도 이후에도, 그리고 광주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소수자, 약자라는 개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힘과 주체 형상과 잠재력이 그 각각의 신체에 역동적으로 내재하기 때문이다." (김미정, 앞의 글, 39-40면.)

18) 김미정, 위의 글, 37면.

‘우리’, 그리고 독자인 우리들 모두에게 배분됨으로써 그 증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복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19]

문학적 매개의 ‘기능’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일상 및 부인 문화에 익숙한 수용자를 고려, 오늘날 일상적 독서조건에서 가능할 문학적 효과의 한 가능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는 여러 차원에서 진행된다.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체험을 통해 추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 즉 보다 문학 내적이며 체험적 차원에서 오늘날 효과를 발휘할 문학적 매개의 가능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한 시도에 따르면, 독자는 저 폭력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소녀’를 마주하되, 작가가 소설 속 인물들에게 “배분”한 “직감”과 “변화”,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연쇄를 통해, 저마다 저 연쇄의 한 지평을 과도하지 않은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즉 문학은 “문학의 추모”라 명명할 수 있을 서사구조를 통해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을 체험한 자들과 체험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20]을 매개하고자 한다. 닿을 수 없는 ‘소녀’와 독자 사이의 심연을 ‘장’과 ‘우리’라는 인물들을 통해 연약하지만 깊이 있게 연결해보고자 하는 방법인 셈이다.[21]

위와 같은 시도들은 문학 내외적 조건을 고려하며, 오늘날과 과거의 폭력적 역사를 매개함으로써 새로운 현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 폭력에 대한 망각과 부인의 문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 있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점증하는 부인의 문화 가운데 위와 같은 시도들이 과연 충분히 의미 있는 효과

19) 배하은, 「재현 너머의 증언-1980년대 임철우, 최윤 소설의 5.18증언-재현 문제에 관하여」, 『상허학보』 50호, 상허학회, 2017, 524-532면.

20) 배하은, 위의 글, 515면.

21) 이와 유사한 소설 내적 매개의 장치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조회경, 「최윤 소설의 전복성과 윤리성의 관계」, 『우리문학연구』 56호, 우리문학회, 2017 ; 김경민, 「2인칭 서술로 구현되는 기억 · 윤리 · 공감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를 발휘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지점들이 질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과거의 '상처를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질문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다.

하나는 '부채의식'으로, 비근한 사건과 연계함으로써 저 부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동적 역량을 키워 타인의 문제를 저마다의 '나'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부채의식 자체의 크기를 여러 계기적 차원으로 나누어 감당해야 하는 그 양과 부담을 줄여본다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후일담 문화와 같은, 오늘날과 괴리된 '80년대적인 것'이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어려워 보인다.[22] '희생자'와 우리 사이에 놓인 "진실을 부인하는 수많은 방식"[23]은 결국엔 폭력을 '나'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한정하게 하며[24], 이는 다시 부채의식으로, 경우에 따라 부채에 대한 부인denial으로 이어지기 쉽다.

다른 하나는 '폭력의 재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현의 폭력'

22) '오늘날'이라는 시간성과 관련하여, 이를 "비혁명의 시대"라 명명, 그 출발을 80년대적인 것이 막을 내리는 91년 5월 투쟁 실패로 삼는 논의는 80년 5월 광주를 형상화하는 문학의 역할과 관련하여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가리킨다. 80년대적인 것을 이끈 열정의 출발이 5월 광주였다면, 그 동력이 일단락된 지점이 바로 91년 5월 소위 '죽음의 굿판'(김지하)이라 불리던 '분신정국'이다. 그런데 '오늘날'이 91년 5월 이후라는 시간성, 즉 80년대적인 것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어온 시간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부채의식'은 좀처럼 가능할 수 없는 효과인 셈이다. 관련하여 김정한, 『비혁명의 시대 :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참고.

23) "진실을 부인하는 수많은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너무나 끔찍하고 위협적이며 비정상적이어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인정하기도 힘든 정보를 종종 접한다는 점이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억제하거나 부정하거나 제쳐두거나 재해석한다. 설사 의식에 '등재'하더라도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의미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합리화해버린다." (스탠리 코언, 앞의 책, 48면.)

24)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도미야마 이치로는 폭력과 신문訊問의 공간을 '남'으로 한정하며 '나'를 지켜내고자 하는 태도 즉 "폭력의 타자화"의 문제를 두고 이를 동시대 가장 큰 위기라 진단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타자화의 경향 가운데 이를 벗어날 수 있을 미결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오늘날 부인과 타자화의 문화 속에서 가능할 새로운 우리의 태도를 모색한다. (도미야마 이치로, 『시작의 앎』, 심정명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0.)

문제로, 작가의 차원에서 말할 수 없는 폭력과 고통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독자의 차원에서도 역시 심연으로서 타자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보다 섬세하게 질문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이라는 '조건' 혹은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창작'과 '해석'의 과정에 존재하는 '타자적인 것'을 좀처럼 '타자'로서 보존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타자적인 것을 지나치게 고려함으로써 타자와 우리 사이의 가능할 유의미한 연결지점을 놓칠 수 있는 까닭이다.

> 그런 의미에서 소녀의 고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 그녀의 광기에 감염되어버린 주변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주체, 즉 증언의 주체는 피폐해질 정도로 훼손된 그녀의 몸이라고 해야한다. 소설 속 증언의 주체가 몸이며, 이들의 말을 듣는 주체 역시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증언하는 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물음, 즉 타자의 고통을 증언하는 행위의 주체적 성격과 관련된 근본적 물음으로 향하게 한다.
>
> …
>
> 최윤 소설이 안겨주는 부채의식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주체의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로 소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최윤의 증언이 야기하는 부채의식이 단순한 죄책감보다는 수치심과 공포에 가까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요컨대 수치와 공포는 소녀의 존재가 지닌 예외성과 고유성, 즉 차이가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같음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소녀의 몸은 그 자체로 인간이 근거하고 있는 휴머니즘적 믿음을 해체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인간'이라는 단어의 관념주의적 허상을 폭로한다.[25]

25) 강동호, 「해설: 희망을 증언하는 언어들의 역사」,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8, 345-349면.

위의 해석은 앞서 주의를 요하는 두 가지 문제에 명료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현의 폭력과 관련하여, 위 소설에 대한 작가 본인의 산문 제목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작가가 재현불가능성 자체를, 즉 바로 "몸"을 주체로 삼는다고 말한다. 요컨대 '몸', "육체에게도 언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실제 언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이 지배했던 과거의 언어가 직면하는 실패로 인해 감행되는 말 자체의 변혁과 쇄신을 뜻"[26]하는 것으로, 작가는 저 '몸'을 통해 창작에 있어 재현의 윤리적 차원 문제를 상대하고, 이 변혁과 쇄신에의 의지를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은 저 의지를 촉발하는 정서가 '부채의식'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그토록 잔인하게 파괴된 "소녀의 몸"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초래하기보다, 하나의 상식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믿었던, 일종의 "휴머니즘적 믿음"이 해체되는 사건으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즉 타인에 대한 부채의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 자체가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나' 자신을 포함한 "수치와 공포"야말로 오늘날 저 소설을 통해 5월 광주를 현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오늘날 독자가 독서 이후 발현될 의지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보존을 위한 일로 느끼게끔 함으로써, 오늘날 5월 광주를 보다 보편화하고자 하는 해석이다.

이처럼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최근 해석들은 사건의 현재화와 관련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상호 경쟁적이라기보다는 보충적으로, 오늘날 부인문화를 상대하는 대안적 해석들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와 같은 해석적 투쟁들의 의의는 의심할 수 없다. 다만 오늘날 해석적 투쟁들이 광주의 역사를 '감염'의 관점에서 '현재화'하는 일에 집중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

26) 강동호, 앞의 글, 346면.

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컨대 기존의 해석들은 역사의 현재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체화'의 문제, 즉 폭력을 방관하거나 재생산하던 인물들의 반성과 변화의 계기에 주목하는 가운데, '장'과 '우리'의 '말'에 집중하지만, 정작 '소녀'의 '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소녀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인하여 외려 소녀의 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의 해석들은 '소녀'를 '타자'로서, 그 어떤 주체보다 조심스레 다루며 여러 대안적 해석을 제출했다. 그러나 '타자'로서 '소녀'를 재현하는 방식이 '피해자', '비체abject', '호모사케르Homo Sacer' 등과 같다면, 그 재현된 주체의 결과적 양상이 아무리 능동적 양태의 그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부인의 문화에서 이는 궁극적으로 [소녀 / 오늘날 우리]라는 이분법, 즉 [피해자 / 방관자(적 가해자)]라는 이분법의 반복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존의 해석들은 오늘날 독자로 하여금 폭력적 일상의 반성을 통해, 저 이분법으로 직면하게 하고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착수하게끔 하지만, 그 계기까지만 제공할 뿐, 이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추가적인 계기들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자'에 대한 환대 및 윤리 담론 안에서, 소녀의 '존재'가 아닌 소녀의 '목소리-말'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역설로서, 작가가 직접적으로 재현한 소녀의 목소리[27]라는 사실이 오늘날 재

27) 타자의 '존재'뿐 아니라 그 '목소리'의 재현 문제에 있어 '작가'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가피한 한계는 충분히 인식되고, 거듭 새로이 대답되어야 할 것이다. 대답의 한 양상으로는 다음의 문장을 참조. "비밀을 밝힌다는 건, 누군가의 삶의 증인이 된다는 건, 존재의 경험적 사실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험적 사실성에 의해 삭제되어버린 타자의 흔적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재의 가장 치명적이자 극단적인 형식인 죽음과 접속하는 위험과 고통을 동반하는 일일 수도 있다. … 다행스럽게도, **최윤은 이 모든 광기와 죽음에 홀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쓰여진 광기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광기와 죽음을 증언한 자들은 '소녀'(가 아니다.) … 그녀는 소설가이다. …광기를 쓴다는 건** 그걸 쓰는 자에게 닥칠 수도 있는 광기와 죽음에 이끌리는 순간을 미루는 것이며, 광기가 드러나기 전에 그

현의 윤리에 있어, 불완전한 재현이자 재현의 폭력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까닭에 발생한다. 즉 재현의 윤리에 충실함이 의미하는 바, 소모되지 않는 무엇이 되기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는 거듭 타자의 것[28]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러나 문제는 안타까운 경우 위와 같은 해석의 노력들은 독자로 하여금 '피해자 중심주의'와 같은 함정에 빠지게 함으로써 역설적인 결과[29]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소녀'의 말을 통해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한 측면을 놓치게 될 수 있는데, 요컨대 소설의 창작 동기는 "그리고 **또** … 감염의 경로를 보여주"기 위한 것, 즉 소설은 독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작가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작품은 헌시를 쓰는 마음으로 썼다"[30]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의 그대로 위 소설은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는 뜻으로 쓰여진 소설로, 우리는 이 창작 동기에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할 뛰어나고 위대한 정신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할 필요가 있다.

---

걸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혜령, 「쓰여진 혹은 유예된 광기」, 『작가세계』 15(1), 2003, 118-120면.)

28) "오월문학에 있어 '노래'는 언어 너머의 공백을 보존하면서 증언의 영역을 열어놓는 불가능한 언어의 형식이다." (김형중, 「총과 노래2」, 『후르비네크의 혀』,문학과지성사, 2016, 67면.)

29) "나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거나, 피해자를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태도야말로 피해자를 타자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피해자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6면.)

30) 작가 최윤은 위 소설의 창작 동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작품은 내가 겪지 못한 광주항쟁에 바친 내 나름의 헌사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헌시를 쓰는 마음으로 썼다.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프랑스의 한 소도시의 유학생이었고,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중 바로 내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국어로 쓰여진 온갖 보도기사들을 한 옆에 쌓아놓은 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최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 「저기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앞의 책, 99면.) 작가는 80년 5월 광주에 대해, 직접 겪지 못한 자로서의 부채의식을 느꼈고, 이에 대응하여 위 작품이 헌시를 쓰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오월 소설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쓴다는 행위를 통해 그 상처를 불러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완전히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오월 소설이 이후에도 계속 창작되어야 하고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언어로 이루어진 기억과 애도이기 때문이다.[31]

다른 한편, 소녀의 '말'에 주목하여 이를 주제화하는 논의들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요컨대 소녀를 주제화하는 논의들은 소녀가 억압하고 이로써 자기파괴로 이어지게끔 한 상처, 즉 트라우마라는 '타자적 고통'을 소녀가 점차 직면함으로써 새로운 주체가 되어가는 그 과정과 결과를 의미화한다. 이러한 주체화 과정은 위의 인용문과 같이 '애도'와 '회복'의 과정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그것의 실패를 주제화함으로써 그것의 원인으로서 폭력적 구조를 거듭 환기[32]한다는 해석으로 나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들 역시 재현된 소녀의 목소리 문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미완된 무엇으로 즉, 거듭 독자에게 새로운 역사적 존재로의 주체화를 촉구하는 '타자'와 '실패'의 양상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해석들의 한계를 반복한다. 즉 '소녀'는 소설 속 '우리'들에 의해 발견되지 못한 '타자'적인 소녀이기에, 그 회복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자 목소리로서, 독자로서 우리는 저 소녀와 유사한 현실 속 "또 다른 수많은 소녀"[33]들과 더불어 앞서의 해석자들이 수행한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최윤의 중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을 둘러싼

31) 유홍주, 「오월 소설의 트라우마 유형과 문학적 치유 방안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82면.

32) 김혜경, 「최윤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중편,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 차원현,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광주」, 『민족문학사연구』 5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33)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8, 242면.

해석들의 양상들과 관련하여, 80년 5월 광주 및 이를 재현한 소설을 현재화하기 위한 여러 해석적 노력들의 방법들을 살펴보며 그 의의를 확인하였고, 다른 한편, 해석이 창출하는 그 효과가 과연 부인의 문화와 같은 오늘날의 저항에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부채의식'의 문제 및 '재현의 폭력'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그간의 해석 투쟁들은 오늘날 부인의 문화에 유효하게 대응할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들을 마련하였지만, 이행기 정의와 관련한 역사학 및 사회과학의 관점과 유사하게,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사이의 교착상태가 보여주는 피해/가해, 보복/용서의 이분법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해석들은 '피해'와 '보복'의 문제에 유의미하게 일조할 수 있지만, '가해'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외려 더 갈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해석적 노력은 '역사적 참여'와 같은 응보적 정의에의 참여에 집중하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갈등 구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다른 한편의 반발을 생산할 수 있다.

## 3. 이행기 정의와 비극 :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 5.18은 비극이었다. 참극(慘劇) 혹은 참사(慘事)가 아니었다. 비참한 죽음, 피할 수 있었던 희생이었다는 생각은 5.18에 대한 오해다. … 비극을 완성한 것은 '안티고네'였고, 그녀의 행위였다. … 안티고네가 그랬던 것처럼 일군의 저항적 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다. 따라서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비극적 행위였다. … 30년전 일단의 시민들은 국가의 권위가 과잉폭력의 이름으

> 로 굉음을 울리며 선포되던 바로 그 5월 광주에 자신들이 자유 시민임을 증명하는 비극의 무대를 설치했고, 배우들을 불러 모았으며, 피비린내 나는 자살적 저항 속에서 숭고한 비극 한 편을 완성시켰다.[34]

『안티고네』의 구도를 빌려, 80년 5월 광주를 비참이 아닌 '비극'으로 보는 위의 해석은 본고의 2장에서 살펴본 해석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소설과 관련한 해석이 상당수 5월 광주를 극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위의 해석은 이를 '선택'이자 죽음을 대가로 하는 '자유'의 한 '행위'로 바라보는 까닭이다. 그리고 위의 해석은 윤상원으로 대표되는 5월 광주를 일반 대중이 추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영웅화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주체'로서 의미화하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과도한 '부채의식'을 전달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대가 설치되고 역사의 배우로 호출되었을 때 기꺼이 그 무대에 올라 네 자신의 영혼을 증명하는 비극적 춤을 출 수 있겠냐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물음(이자) 그 이후를 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35]은 80년대에는 "강박"으로나마 존재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끝나면서 시작한 89년과 91년 이후의 오늘날, 이는 기존의 해석보다 더 난처한 무엇으로 전달되지 않기가 어렵다.

> 관객에게 미치는 작용(은) 비극의 본질 규정에 포함(된다) … Elos와 Phobos… 이 두 낱말은 인간을 엄습하고 휩쓸어가는 사건을 의미한다. Elos는 우리가 비참하다고 말하는 무언가를 대할 때 우리에게 덮쳐오는 **비참함**이다. … Phobos는 급격하게 몰락에 빠져드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불안의 전율**을 의미한다. 비참과 걱정은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것의 마력을 증언하는 망아, 즉 탈자 존재

34)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31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440-442면.
35) 차원현, 위의 글, 462면.

> 의 방식이다. … 비참과 전율의 엄습은 고통스러운 분열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일어나는 사건과의 불일치, 즉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 태도가 들어 있다. 이 거부감이 끔찍한 사건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과의 이러한 분열이 해소되는 것은 바로 비극적 파국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비극적 파국은 압박된 가슴을 전반적으로 해방시켜준다. 사람들은 이러한 운명의 비참함과 전율로 자신들을 사로잡은 그 마력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신들을 존재하는 것과 분열시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36]

그럼에도 어떤 참혹한 사건을 '무한성'을 기준으로 '비참'과 구별하며, 이를 '비극'[37]을 통해 인식하고자 하는 시선은 문학의 한 오래된 방법으로서, [피해/가해], [보복/용서]와 같은 멜로드라마적 이분법을 넘어 사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독자에의 "작용", 즉 그 수용의 양태야말로 그것의 "본질 규정"인 비극은, 신과 같은 무한성으로부터 "덮쳐오는 비참함" 및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불안의 전율"을 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의 "비극적 파국"은 독자로 하여금 어떤 "해방"감(카타르시스)을 제공한다. 파국이라는 귀결이 패배와 좌절, 회의와 같은 감정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려 비극의 독자는 저 파국적 결과와 더불어 "비극적 긍정"을 수행하는데, "관객은 운명의 힘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유한한 존재를 인식" 함으로써, 즉 '죽음'과 같은 망각했던 형이상학적 질서를 다시금 인지함으로써, 기존 삶과 욕망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실존적 도약을 수행하기 때문이다.[38]

---

36)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진리와 방법1』, 이길우 외 옮김, 문학동네, 2012, 185-187면.

37) 칼 야스퍼스, 「비극론」, 『철학학교/비극론/철학입문/위대한 철학자들』, 전양범 옮김, 동서문화사, 2009, 184면.

38) 비극적 긍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 "질문은 다시 제기되어야 한다. **관객은 비극에서 무엇을 긍정하는가?** 죄짓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가 부적절하고 가공할만큼 크다는 것이 관객에게는 부당한 요구로 나타난다. **비극의 긍정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합일의 특징을 갖는다. 비극적 불행의 그러한 과도함에서 경험되는 것은

그러나 5월 광주를 비극으로 보고자 했던 위의 시도가 오늘날 또 다른 부채의식으로 회귀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독자는 비극을 비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신과 같은 무한성 및 그로 인한 죽음과 같은 고통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을 극복할 가능한 대안들에 집착하고[39], 부인의 문화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저 비참과 죽음을 내 일이 아닌 다른 이들의 것으로 타자화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회피한다.

> 어떤 날들에는 시지프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산을 내려오지만 그는 또한 기쁨 속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 그것은 고통으로 시작되었다. … 엄청난 비탄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겁다. 이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겟세마네의 밤들이다.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진리들도 인식됨으로써 사멸한다. 이렇듯 오이디푸스도 처음에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운명에 복종한다. 그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눈멀고 절망한 오이디푸스는 … 기가 막힌 한마디 말소리를 (한다.) "그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령과 나의 영혼의 위대함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좋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고대의 예지가 현대의 영웅주의와 만난다. … "내가 판단하건대 모든 것이 좋다."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신성하다. 이 말은 인간의 사납고 한정된 세계 안에서 울린다. 또 모든 것이 밑바닥까지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며 소진되지도 않았음을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불만과 무용한 고통의 취미

---

진정한 공동의 것이다. **관객은 운명의 힘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유한한 존재를 인식**한다. 위인들이 겪는 것은 전형적인 의미를 갖는다. 비극적 비애를 동의하는 것은 비극의 과정 그 자체, 또는 영웅을 덮치는 운명의 정당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일종의 형이상학적 존재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로잡혀 있던 미망에서 깨어나 되돌아온 일종의 자기인식**이다. 비극의 긍정은 의미의 연속성에 의한 통찰이다. 관객은 스스로 이 의미 연속성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앞의 책, 188면.)

39) George Steiner, ""Tragedy," Reconsidered", New Literary History, Vol.30, no.1 (winter 2004) : 1-15.

> 를 가지고 들어온 신을 이 세계로부터 추방한다. 그 한마디가 운명을 인간의 문제로, 인간들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시지프의 소리 없는 기쁨은 송두리째 여기에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다. 그의 바위는 그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응시할 때 모든 우상은 침묵한다... 부조리한 인간의 대답은 긍정이며 그의 노력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40]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읽은 독자는 오랜 기간 지속하긴 어려울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과 비탄을 분명히 인지한다. 비록 그 인지가 이내 곧 '대안적 역사에의 참여'로 혹은 반지성주의적 '부인문화' 나아갈지라도 독서 가운데 우리는 분명 저 감당하기 어려운 무엇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위의 두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한 길을, "현대의 영웅주의"라 명명되는 한 길을 발견한다. 즉 "내가 판단하건대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폭력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 소진되"지 않는 인간의 힘을, 나아가 부조리 가운데 이를 "긍정"해내고 마는 힘을 발견하며, 비극의 효과와 관련하여 오늘날 가능할 새로운 비극의 길을 확인하는 셈이다. 위와 같은 방향은 "신을 이 세계로부터 추방"하는 근대적인 태도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시지프의 끝없는 노동으로부터 기인하는 역설적인 "기쁨"의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부인 이외에도 가능할 또 다른 선택지로 기능한다.[41] 요컨대 독자는 비극의 인물이 저 끔찍한 고통을 회피하는 것

---

40)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옮김, 민음사, 2016, 183-184면.

41) 비극의 장르는 본래 일반 대중은 공감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엘리트주의적 장르이지만, 전제를 점차적으로 실현 가능케 하는 것 역시 비극 및 비극 해석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다음의 문장을 참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관객은 철학자 대중, 즉 이해하는 대중이며,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대중이라고 지적했던 것을 자네도 기억하겠지. 그리고 포트라는 이 '엘리트주의'에 브레히트의 지지자들을 대립시켰어. 하지만 내(필립 라쿠-라바르트)가 보기에는 브레히트주의자들도 별 차이가 없었네. 연극의 진정한 사명은 모든 관객이 '철학자' 관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빼놓고는 말이야." (필립 라쿠-라

이 아니라 정확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과정을, 즉 현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신)로부터의 억압과 핍박이 아니라, ‘자유’와 ‘자기구원’의 계기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독자는 이로써, 역사와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안에 추상적으로 동원되거나 혹은 이를 수동적으로 거부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 방향 자체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재정립될 기회를 얻는다.

본고는 위와 같은 현대적 영웅주의로서 ‘비극’이 열어둔 방향을 따라,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새로이 독해하고자 한다. “헌시를 쓰는 마음으로” 작성된 위 소설은, ‘헌시’라는 말뜻 그대로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는 소설로서, 본고는 그간의 해석들이 불가피하게 놓치고 있었던 소녀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위 소설이 오늘날 가능할 비극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본고는 ‘소녀’를 상징으로서가 아닌, 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부인 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대안적 해석의 한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죄’와 ‘소녀’

> “자 잘 봐. 내가 세세하게 말해주지. 너는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 복부의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를 바라보았어. 갑자기 주위의 아우성 소리가 선명하게 가락가락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지. 그리고 소리로 되어 나오지 않는 고통 때문에 너를 더욱 움켜쥐고 있는 엄마 손, 돌처럼 순식간에 굳어져버린 것만 같은 엄마 손, 뜨거운 손, 달아오른 돌, 내 손을 까맣게 태워버릴 것만 같은 엄마 손아귀에서 손을 빼려고 너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지. 그런데 소용돌이 속에서 굳어져버린 엄마의 손이 너를 놔주지 않았어. 너는 이미 마른 장작처럼 쓰러지는 엄마의 무게에

바르트, 장-뤽 낭시, 『무대』, 조만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0, 26-27면.)

> 끌려가면서 다른 손으로, 그래, 잔인하게 엄마 손가락의 갈쿠리를 하나씩 떼어내려 했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지? (중략) 너는 급기야 한 발로 엄마의 내팽개쳐진 팔을 힘껏 누르고 네 손을 빼어냈어. 엄마의 근육살이 발밑에서 미끈거렸지. 너는 사력을 다해 밟았어. 그리고 무더기로 이동하는 무리를 피해 달아났지. 몇 얼굴을 밟았는지도 모르는 채, 몇 얼굴이나 네 다급한 발길로 차 내던졌는지도 모르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어. … 아, 발 밑에서 미끈거리던 엄마 팔의 느낌, 내 손아귀 속에서 아직도 뜨거운 엄마 손의 촉감. … 내 끔찍한 범죄의 자리.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나는 엄마의 손, 팔, 흰 눈자위를 내 발로 짓이겼어."[42]

소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그 어떤 법적, 도덕적 처벌을 받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테지만, '형이상학적 죄'를 넘어 인륜 문제의 어떤 경계에 있을 그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소녀가 느끼는 죄책감에 충분한 동의를 표할 수 있다.[43] 이를 두고 우리는 프레모 레비가 말한 '회색지대'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다. 비록 정확한 의미에서의 회색지대, 즉 폭력의 '협력자'라는 측면에 '소녀'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생존'이라고 하는 당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로서 피해와 가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회색의 영역에 소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억압당하는 환경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종 그

42)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앞의 책, 324-325면. 이하 인용문은 면수로 표기.

43)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의 문장을 참조. "세계의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해 특히 자신의 면전에서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범죄에 대한 인간 각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바로 이 연대(형이상학적 죄: 인용자)이다. 내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행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범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진다. 내가 타인의 살해를 막기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면, 나는 법적, 정치적, 도덕적 죄 개념으로는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죄임을 느낀다. 그러한 범죄가 자행되었는데도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 내게 돌아온다." (칼 야스퍼스, 『죄의 문제』, 이재승 옮김, 앨피, 2014, 87면.)

죄가 객관적으로 무겁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한 심판을 맡길 만한 인간의 법정을 알지 못한다."[44]라는 프레모 레비의 말처럼, 독자는 소녀의 죄에 대해 추궁하거나 이를 주요하게 문제 삼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소녀의 죄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소녀의 관점에서 소녀가 느낀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그 책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 죄책감과 이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는 서사를 진행시키는 주요한 모티프이자, 이 소설을 단순히 '희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하는 근거이다.

> 내가 물을 건너는 동안 수많은 얼굴들, 내가 길에서 만난 얼굴들, 모두 어느 한구석엔가 폭탄을 숨겨 놓고 있는 사람들의 슬픈 얼굴들이 물속에 다 녹아 들어갔어. 나를 몰매질한 사람들, 내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준 사람들, 내 이마를 짚어주고 알약을 가져다준 사람들, 내 몸에 파랑새를 들이밀고 난 다음 황급하게 도망치던 사람들. 자 이 이 얼굴들은 강물아 모두 너의 것이다. 나는 힘이 없고 내 머릿속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 내 대신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으렴. 어느날 내 머릿속에 장막이 걷히고 내가 나를 그늘 없이 사랑하게 될 때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간직하고 있으렴. 고마운 강.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279면)

"어느날 내 머릿속에 장막이 걷히고 내가 나를 그늘 없이 사랑하게 될 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소녀의 목소리는 약속의 대상인 "고마운 강"에 "수많은 얼굴들"을 맡긴다. 독자는 이 수많은 얼굴들이 5월 광주에서의 폭력 이후, 오빠를 향한 여정에서 소녀가 마주한 뭇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저 얼굴들이 다른 얼굴들임을 눈치챈다. 소녀가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고 용서할/받을 때까지 맡겨두는 저 얼굴들은, 국가 폭력 이후 사회의 뭇 사람들에게 받은 또 다른 폭력의 얼굴들

44) 프레모 레비, 「회색지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옮김, 돌배게, 2014, 49면.

혹은 힘 없는 동정의 얼굴들이라기보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얼굴들, 즉 엄마를 짓이기고 떠난 자리에서 밟고 걷어찬 그 얼굴들[45]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소녀의 목소리는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러 걷어내는 머릿속 검은 장막처럼, 외면하고 싶은 죄스러운 '나'의 모습을 똑바로 직면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혹은 '처벌받음'을 수행하고자 한다. 만약 소녀가 자신의 '죄'를 서둘리 망각하고 씻어내고자 하였다면, 소녀는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저 고마운 강에 자신을 씻어냄으로써 재생을 도모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엄마를 비롯 자신이 짓밟고 간 무수한 얼굴들을 잠시 강에 맡겨두고 어떤 여정을 떠난다. 이러한 여정은 스스로를 "그늘 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즉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저 얼굴들을 온전히 다시 마주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에의 의지 발현으로 독해할 수 있다.

> 그녀의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깊은 어떤 것으로 이미 늙어버린 얼굴. 그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오랫동안 막아놓았던 심연의 물살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김의 어두운 얼굴을 주시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쇠꼬챙이처럼 바짝 마르고 검게 그을어 단단한 그녀의 손이 병상가에 놓인 김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은 후, 김의 입이 어떤 제어를 가하기도 전에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고, 속으로 속으로만 으깨서 다져 넣고 꺼내 보기를 피했던 아픈 사연이 그의 입에서 물꼬 터지듯 흘러나왔다. 그녀가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듣고 있었다면 그의 말을 이해했는지 김은 알 수 없노라고 했다. 그녀는 아마도 김을 이해했을 것이다. 사연 자체를 설령 듣고 있지 않았다 해도 그녀는 김의 고통의 깊이를 손을 내밀던 그 순간에 이

45) "몇 얼굴을 밟았는지도 모르는 채, 몇 얼굴이나 네 다급한 발길로 차 내던졌는지도 모르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어."(325면)

> 해했을 것이다. … 어느 날 김은 별 기대 없이 혼자 말하듯이 나지막하게 그녀의 이름과 살던 곳과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냐고 물었다. 그녀 또한 혼자 말하듯이, 그러나 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가 구멍이 뚫려 죽어 오빠 찾아 서울 간다고만 말했다.(291-292면)

소녀의 여정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할 부분 중 하나는 인물 '김'과 소녀의 관계이다. '김'이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고, 속으로 속으로만 으깨서 다져 넣고 꺼내 보기를 피했던 아픈 사연"을 소녀에게 말한 후 '김'과 소녀 사이에 어떤 "이해"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은 소녀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보충해줄 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엄마가 구멍이 뚫려 죽어 오빠 찾아 서울 간다"는 말은, 소녀가 외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결정적 사실이지만, 이 결정적 사실이 '김'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김'만이 이 순간을 통하여 소설을 통틀어 유일하게 소녀의 온전한 문장을 듣는다.[46]

'김'은 "소녀 적에 죽은 김의 연인"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사는 가운데, 우연히 '소녀'를 만나고 이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며 과거의 죄책감을 극복해보고자 '소녀'를 극진히 보살핀다. 그리고 '김'은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즉 죄책감으로 가득한 "꺼내 보기를 피했던 아픈 사연"을 소녀에게 고백하고, 소녀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한다. 즉 소녀는 자신과 유사하게, 극심한 죄책감의 경험 속에서 이를 감당하고 이를 결국 고백해내는 '김'에 공감하며, 소녀의 결정적 비밀을 그와

46) 옥포댁 역시 소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듣지만,("일주일 동안 옥포댁이 알아낸 것은 그녀가 혼자라는 것과 어디 먼 곳으로 살붙이를 찾으러 가는 중이라는 것이었다."(263면)) 그것이 소녀의 온전한 목소리와 문장에 의해 발화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다. 소녀는 계속해서 분절적인 단어들을 내뱉고, 이로써 어떤 추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죽은…오빠, 검은…구멍, 빨간 구멍…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튀어나왔지만 그것은 이미 독립된 단어가 되지는 못했다."(290-291면)). 다만 온전한 문장으로 직접적으로 발화된 것은 '김'과 의 장면에서가 유일하다.

공유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녀의 여정이 '죄의식'을 감당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소녀의 의지에 의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2) '소녀'와 '오빠'

> 오빠를 찾아야 돼. 오빠 무덤이라도 찾아야 돼. 오빠가 얼마나 놀랄까. 엄마 소식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나 혼자만 살아서 먼 길을 왔다고 오빠가 돌아누워버리면 어떡하지. 죽은 사람도 화를 낼 수 있는 걸까. 얼굴을 찡그리고 입을 벌리고 먼 길을 온 나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걸까. 오빠는 무덤 속에서 얼마나 숨통이 막힐까. 아 목이 말라. 자면 안 돼.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오빠는 지금쯤 자고 있겠지. 지금은 밤이니까. (259면)

> 오빠도 깜깜한 곳에 갇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누군가가 엄마와 내 소식을 가져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정작 오빠가 소식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무슨 이야기로 내 상한 몸을 변명할 수 있을까. 내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 차근차근하게… 엄마와 나… 그날… 그리고 검은 휘장이 있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오빠만 좋다면 우리 동네로 돌아가는 거야. 마을에는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겠지.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눈을 부릅뜨고, 어쩌면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난 못해. 오빠가 그러자고 해도 난 그 환한 빛 속을 걸어 집까지 갈 수가 없어. 나는 결코 검은 휘장 얘기를 오빠한테 해줄 수가 없어. 그것만은 절대로. 오빠의 죽은 몸이 슬픔으로 가루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땐 길을 떠난 걸 후회하긴 너무 늦었을 테니까.(271-272면)

소녀의 여정은 죽은 오빠에게 가 닿아 그 오빠에게 그날 엄마와 있었

던 일을 말하기 위한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소녀가 스스로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속죄'의 여정으로 보인다. 즉 오빠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오빠로부터 '용서'받음으로써,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지울 수 없던 그 죄의 현장에서 소녀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을 건넌 소녀는 오빠의 용서와 더불어, 오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살던 "동네로 돌아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소녀는 오빠가 소녀를 용서해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오빠를 향한 그 고통과 속죄에의 여정을 거듭 지연시킨다.

여기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빠와 소녀의 관계로, 소녀의 오빠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에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하는 유일한 대상이자, 또 용서해줄 수 있을 유일한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도시로 유학간 대학생 오빠의 존재는 사실상 집안의 가장으로서 상징적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47]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아버지에 다름 아닐 오빠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소녀의 시도는, 이 모든 죄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사건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

47) 최윤은 그녀의 산문집에서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을 통해, 가정 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소설 속 엄마 및 소녀가 오빠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지 추론할 수 있으며, 작가가 희망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역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문장을 참조. "나는 이 짧은 이야기를 특히 우리나라의 평범한 여성들이 두고 읽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홀로 서고 싶은 많은 여성을 일깨워주기를 바(란다.)… 나를 포함한, 성년이 된 무수한 여성들은 모두 마음속에, 한두명의 〈큰바위 얼굴〉의 사나이를 그려가지고 있다. … 어려서 소녀들은 오빠나 아빠를 찾고 여자로 큰 다음에는 열렬히 큰바위 얼굴의 애인을 찾는다. 결혼을 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택한 남편이 큰바위 얼굴의 남자가 되도록 하는 데 열정과 정력을 투자한다. … 그리고 남편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는 주로 아들에게서 큰바위 얼굴을 찾는다. … 왜 여성은 늘 대리적인 삶 속에서 만족을 찾아야 하는가. … 남편이나 아들, 애인이나 오빠를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구가 자신의 것으로 바뀔 때, 그네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바로 큰바위 얼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최윤, 「큰바위 얼굴」, 『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 앞의 책, 152-153면.)

고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기도 하다. 소녀는 "오빠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얼굴"(298면) 및 역시 오빠가 알아볼 수 있을 "꽃자주색 나들이옷"에 집착하며 오빠로부터의 어떤 '구원'을 도모한다.

그러나 소녀에게 오빠는 좀 더 복잡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소녀에게 오빠는 상징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며 속죄를 가능케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빠는 그의 죽음을 통해 엄마를 미치게 만들고, 엄마를 사실상 죽음의 현장에 이끌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어린 소녀의 시각에서 오빠는 소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일 엄마를 빼앗아간 최초의 원인으로, 오빠는 소녀에게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원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모순적 감정 속에서, 죽은 오빠를 향한 소녀의 여정은 회복에의 욕망에서 기인한 속죄와 구원에의 길이 되기 어렵다.

> 오빠, 나야.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 그동안 좀 쉬었어. 나를 알아보지? 알아본다구 말해봐. 너로구나, 하고 말해봐. 오빠한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 이렇게 꽃을 꽂으니까 이제는 나를 알아볼 수 있겠지. 오빠도 알고 잇는 이 옷 생각나지. 오빠가 추석에 온다고 엄마랑 시내 가서 산 옷, 오빠가 예쁘다고 그랬지. 시집 보내준다고 그랬지. 더 많이, 더 예쁜 옷들을 사 준다고 그랬지. 그런데 안 사 줘도 돼. 오빠가 나를 알아보면 돼. 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 절대 내가 얘기하는데 귀를 막으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만 가루가 되어서 이 자리에 폭삭 무너지게 될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징그럽게 여러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 나는 수천 번이나 내 몸이 가루가 되어서 넓고 넓은 우주 위를 소리 없이 떠다니기를 바랐었지. 그런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눈만 뜨면 동일하게 다가오는 검은 휘장. 아니 눈만 뜨면 나는 허겁지겁 내 얼굴을 두꺼운 휘장으로 덮었지. 언제까지 이 어두움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래, 그날 얘기를 해줄게. (316면)

> 나는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 수많은 사람이 모두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얼마나 지옥같이 긴 시간 동안 나는 엄마의 손아귀에서 내 손을 빼내려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무수한 입을 통해 그 끔찍한 소문이 여름 산의 불처럼 퍼져 나갔겠지. (중략)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어. 오빠의 무덤 밖에는. 오빠를 두 번 죽이게 된다 해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돼. 그러고 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가루로 변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겠지. 자 이제는 무섭지 않아. 검은 휘장을 뜯어내고 내 흉악한 얼굴을 달처럼 무덤 위에 떠올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내일 다시 곰팡이 난 내 몸을 햇볕에 말려야지. 그리고 오빠에게 모두를 말해야지. 사방에서 서성거리는 무수한 오빠, 무덤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아 그들이 다른 행사에 몰두하기 전에.(325-326면)

무수한 폭력과 자해 끝에 스스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소녀에게, 오빠는 더 이상 용서와 속죄를 수행할 자격 있는 존재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오빠는 “무덤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아” 소녀와는 무관하게 “다른 행사에 몰두”하는 존재로, 소녀에게 더 이상 구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외려 주도권은 반전이 되어 오빠는 “나를 알아(만)보면” 되는 것으로, 오빠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빠를 두 번 죽이게 된다 해도” 소녀는 오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처럼 소녀는 스스로 이야기-구원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무덤 속 오빠를 향한 소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인물 ‘장’의 시선에 따르면, 그 정체는 모호할지언정, “침묵을 몰아내고 함성이 되어 거대한 가상의 벽 안에 갇힌 채 쩡쩡 울”린다. 그리고 남자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있는 소녀를 본다.[48]

48) “완전한 침묵. 마치 거리가 정지되기라도 한 것처럼,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처럼 갇혀버린 느낌. 여자애는 끝도 없이 사방으로 정렬해 있는 묘비들 중에서 특정한 것을 찾고 잇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정된 절차를 따르는 사람의 익숙한 동작으로 묘석들 위에 드문드문 놓인 꽃다발에서 몇 송이씩을 골라잡아 비어 있는 묘비에 한 송이씩 내려놓고 그 앞에

소녀는 이를 매일 같이 반복하고, '장'은 이를 지켜보기를 "닷새째"만에 "포기"하며 소녀의 "열에 들뜬 절망"(311면)을 확인한다.

> 바위는 또다시 굴러떨어진다. 이제 나는 시지프를 산 아래 남겨 둔다! 우리는 항상 그의 짐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시지프는 신들을 부정하며 바위를 들어 올리는 고귀한 성실성을 가르친다. 그 역시 모든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따로 없는 이 우주가 그에게는 불모의 것으로도, 하찮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돌의 입자 하나하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정(산꼭대기)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49]

소녀는 그녀를 속죄해주고 구원해줄지 모를 오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외려 오빠를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한다. 예컨대 "고귀한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이 소녀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소녀가 오빠를 부정하며 '죄' 조차도 그야말로 '자신의 것'으로

---

차례로 주저앉았다. 서서히 그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분명 입으로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좌우의 흔들림이 점점 격렬해졌다. 남자가 있는 곳에서는 들리지 않는 웅얼거림. 설령 남자가 그녀 가까이 다가간다 해도, 발음되어 나오기 전에 이미 입안에서 가루가 되어 풀썩거리는 먼지처럼 새어 나오는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임을 남자('장' : 인용자)는 미리 알고 있었다. 거의 **경련에 가까운 요동, 그에 따라 남자는 여자애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끝내는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자의 귀를 때리는 소리는 점점 배가되어 묘지 전체를 누르고 있던 침묵을 몰아내고 함성이 되어 거대한 가상의 벽 안에 갇힌 채 쩡쩡 울렸다. 묘석들이 제각기 흔들거리는 듯했고 이제 그 함성은 벽에 금을 내고 그 틈으로 홍수처럼 사방으로 터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남자는 모로 쓰러져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다. 다시금 침묵이 찾아왔고, 그는 조금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자애의 모습을 보았다. 그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그녀는 뒤를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머리에는 서너 송이의 시든 꽃이 꽂혀 있었다."(309-310면)

49) 알베르 카뮈, 앞의 책, 185면.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그리고 “열에 들뜬 절망”으로 표현된 소녀의 이 절망적인 반복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평화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환기한다. 우리가 무한한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시지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소녀는 저 고통스러운 죄의 자기 인수 및 자기 처벌을 통해, 비록 영원한 죄의 삶 속에 놓여있을지언정,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소진”되지 않고 회복하는 육체[50]를 증거하며, 이 모든 불행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상황을 ‘긍정’해내고 있는 것이다. 소녀의 위와 같은 여정과 반복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궁극적인 회복과 같은 구원은 불가능할 테지만, 외려 소녀는 이러한 불가능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스스로 속죄와 구원의 주체가 된다. 소녀는 탈출 가능해보이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탈출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을 죄의식과 부채의식에서 해방됨으로써 어떤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끔찍해 보이지만 위대한 소녀의 저 여정을 통해,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비극’이 제공하는 ‘인간’이라는 ‘자유’의 길을 발견한다.

### 3) ‘소녀’와 ‘장’, ‘우리’

> 착시 속에서 본 지복의 미소가 우리들이 그녀에 대한 상상한 모든 영상을 지우고 우리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그 미소가 그녀를 찾아 떠난 우리의 동기들이 모두 경솔한 것이라고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같아 우리는 말짱하게 잠이 깬 채, 새벽까지 남은 시간을 왜 우리가

50) “기이하게도 위의 소화기능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를 나타냈다. 오랜 기간의 허기를 상상했던 김이나 의사에게 이 사실은 불가사의하게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당연하게 보였다. 그녀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을 견디어내느라 몸이 분쇄되는 것 같은 상실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잡초 같은 생명력일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돌이라도 부수어내는 소화력을 그녀의 위는 터득했을 것이다. 혹은 며칠을 비워두어도 썩지 않게끔 그녀의 위가 단련되었을 것이다. 기적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남아 여기 저기 흔적을 남긴 그녀의 생명 자체가 아니겠는가.” (293면)

> 그녀를 찾고자 여행을 떠났었던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데 보냈다. 이미 가버린 친구의 누이를 찾아 위안해주려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죽은 혼을 안심시키려고? 그날, 그 도시, 그 이후 무언가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한 고통을 섣불리 치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모습에서 끔찍함의 구체적인 흔적을 찾고자 하는 자학 심리? 아니면 이미 피폐될 대로 피폐된 그녀를 보호해주겠다는 경박한 인도주의?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그녀처럼 잠을 두려워하면서 깨어 있기 위해서? 악몽을 암처럼 세포 속에 품고 그러고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착시 속에서 흘끗 본 그녀의 미소의 뜻을 이해한 것은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녀가 그 미소를 머금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다렸다." (330면)

소녀의 행방을 쫓던 오빠의 친구들인 '우리'는, 소녀를 찾고자 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착시 속에서 소녀의 "지복의 미소"를 마주하고,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소녀가 머금은 "미소의 뜻을 이해한"다. 그렇다면 저 지복의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장'을 비롯하여 '우리'는 '소녀'라는 심연을 추적하며, 그야말로 심연을 마주하고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수행한다. '장'과 '우리'는 5월 광주 및 그 폭력을 온몸으로 체현하는 소녀를 깊이 인지한 후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미어질 것 같은 아픔"(312면)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폭력적이었던 '장'이 소녀를 찾아 "그녀를 그녀로서 되돌려놓기 위해"(312면) 신문에 심인 광고를 내고, 또 '우리'들이 몇 개월을 고생한 끝에 공통으로 본 "착시"가 소녀가 온전히 회복된 것과 같아 보이는 "미소"였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왜 우리가 그녀를 찾고자 여행을 떠났었던지." 그 이유의 목록을 살펴보자면, 이는 요컨대 '소녀'를 마주하였기에 돌이킬 수 없

는 죄의식과 부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에 해당한다. ‘장’과 ‘우리’가 그토록 소녀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소녀’를 찾아 돌보고 치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녀에 대한 부채의식을 비롯, 소녀가 체현하는 이 고통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장’은 소녀가 고통스런 반복적 의례 수행을 엿보는 일을 “닷새만”에 포기한 바 있고, 소녀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자학적인 여정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적은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소녀의 피해와 고통만이 아닌, 소녀가 어떻게 저 고통을 비극으로서 감당하고자 했는지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소녀를 찾고자 하는 여정 끝에 이른 어떤 ‘이해’의 얼굴이 처음의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미소의 뜻을 이해한 것은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에서 생략된 저 많은 시간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소녀의 목소리를 빌려, 저 ‘지복의 미소’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처음 공통적으로 착시 속에서 마주한 ‘지복의 미소’란, 희망 없는 여행에 지친 ‘우리’들의 공통적인 무의식이 유사한 대상에 손쉽게 투사하고만 하나의 바람이고 욕망이었을 것이다. 즉 저 미소는 소녀로부터 기인한 공통의 부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낸 착시로서 ‘미소’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저 공통된 착시 이후, 이 여정 자체 및 그에 임하는 스스로의 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함으로써 저 ‘미소’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앞서 소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 죄의식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은 불가능하며, 외려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저 ‘죄’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수하였을 때에 역설적으로 가능한 무엇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투사 대상으로서 소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타자로서 소녀를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장’과 ‘우리’는 ‘소녀’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속죄가 아니라, 소녀처럼 스스로의 죄에

대한 자기책임과 자기긍정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녀가 그 미소를 머금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저 고통스런 추적 및 자기 반성을 통과한 이상, 결코 고통과 죄의식으로부터 탈출한 소녀의 온전한, 사건 이전과 같이 회복된 소녀의 미소를 기다릴 수 없다. 소녀는 '장'과 '우리'의 반성과 재생을 위해 타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소녀 그 스스로의 자기 구원과 자기 긍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장'과 '우리'가 '소녀'를 보다 면밀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스러운 타인에 의존해 획득하는 구원이 아니라, 소녀가 보여준 바처럼 저마다의 자기 책임과 자기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녀'의 흔적들을 그러모은 '우리'라면, 그 긴 여정 끝에 이해하고 기다리는 그 지복의 미소란, 적어도 시지프의 행복한 얼굴처럼, 비극의 인간이 자유다운 자유 속에서 띨 수 있는 미소여야 한다.

## 4. 결론

내가(수용소 내 유대인 : 인용자) 그 죽어가는 나치(그간의 폭력을 뉘우치며 '나-유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나치 ss대원 : 인용자)의 침대 곁에 앉아 끝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고 : 인용자) 침묵을 지킨 것은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틀린 일이었을까? 이것이야말로 한 때 내 양심과 정신에 가해진 것과 똑같이,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양심에 던져지는 심각한 윤리적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처한 딜레마에 공감하면서 내 행동이 정당했다고 두둔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참회를 했는데도 죽음의 순간까지 그를 편하게 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나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용서'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망각이란 오직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지만 용서는 인간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난을 당한 장본인뿐이기 때문이다.[51]

죽기 직전 한 ss대원이 수용소 내 한 유대인에게 참회-용서(구원)를 구하는 사건 가운데, 그 당사자로서 심각한 고뇌로 갈등하는 유대인의 목소리는, 우리가 쉽사리 원한 속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이행적 정의의 국면에서 얘기해보자면, 새로운 사회 정의를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위 사례는 응보적 정의 문제 해결이 과연 용서와 화해와 같은 회복적 정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떤 딜레마를 마주한다.

고통과 관련하여 우리에겐 아직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해소법 혹은 계산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아가 법적 처벌 이외의 죄와 관련한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개의 우리는 저마다의 고통의 대차대조표에 따라 해소되지 않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새로운 사회 정의 정립을 위한 죄와 책임의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갈등과 반목은 반지성주의와 부인의 문화라고 하는 '사회' 소멸 현상과 동반되는 가운데, 이행기 정의라는 숙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새로운 정의는 퇴보적으로 보이는 갈등 속에서 교착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 사회는 용서의 딜레마와 같은 국면에조차 당도하지 못한 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수준에 존재하는 어떤 용서 및 화해의 불가능성이라는 아포리아를 확인하며,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행적 정의에 거듭 새로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프레모 레비는 독자를 향해 "그렇게 우리는 인디오들에게 행한 학살을 '다른 시대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림으로써 마음 홀가분해지려고 하지 않

51) 시몬 비젠탈,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 박중서 옮김, 뜨인돌, 2019, 156면.

았던가?"[52]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이 문장 앞에서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특히 대다수 서구의 독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라는 이분법에서 대개 후자의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 저 "홀가분해지려고"하는 욕망에 대한 질타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죄의식 이상을 촉구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부인의 문화가 점차 팽배해지는 오늘날 위와 같은 질문은 우리에게 가능한 질문인가.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소녀'가 오늘날 독자에게 보여준 바, 추상적이고 계량하기 어려운 타자적인 타인으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 보인다. '더' 고통 받은 사람들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어떤 위계화된 도덕과 죄의식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위와 같은 죄의식, 부채의식에 의한 연대와 역사에의 접속은 '사회' 수준에서 불가피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여전히 발휘하고 있지만, 부인의 문화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오늘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요청되어야 한다.

본고는 기존의 해석적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수준의 태도 정립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소설 속 소녀의 존재가 아닌 소녀의 목소리와 더불어, 어떤 죄에 대한 책임과 용서, 구원의 문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 내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비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자기 용서는 외부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해 스스로가 판단하고 고유한 수준의 자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보와 용서, 피해와 가해와 같은 기존의 이분법적 위치 사이의 해소 불가능한 갈등 이전에, 이를 사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요컨대 비극이 가르쳐주는 태도는 각 개인이 공동체 안

52) 프레모 레비, 앞의 책, 22면.

에서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위치 지어지는 이분법적인 피해/가해, 응보/화해의 구도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고, 이로써 이분법 사이의 "결코 끝이 나지 않는 행위과정의 잔인한 자동운동"[53] 자체를 상대화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난을 당한 장본인뿐"이라는 문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당사자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역사 전체'로부터의 "고난(자)"이라 얘기해본다면, 그리고 저 범주에 '소녀' 및 이를 독서한 우리를 함께 위치시켜본다면, 다수의 우리는 '소녀'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으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한 양상을 획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새로운 정의 정립 문제와 관련, 그간 끝없이 위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분법적 구도 아래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을 불가피하게 타자에게 투사할 수밖에 없었다면,[54] 이로써 타협 가능한 대화가 좀처럼 가능하지 않았다면, 비극이 알려주는 자기 책임의 자율과 이로부터의 선택 및 참여는 새로운 (자기)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53) 한나 아렌트, 앞의 책, 306면.

54) "신정의 유산은 근대 정치 사회들이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시대적으로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불가능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는 적어도 근사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이나 그것들이 보여 주는 정치적 경향들에서 그 등가물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모든 현실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개인은 매 순간마다 신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불안을 타자에게 투사하며, 그가 공동체에 신의 분노를 야기시키지나 않을까 의심하면서 그의 행동을 감시한다. 각자는 결국 다른 사람을 잠재적인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에티엔 발리바르, 「『신학정치론』:민주주의 선언」, 앞의 책, 74-75면.)

## | 참고문헌 |

### 1. 논문

김경민,「2인칭 서술로 구현되는 기억 · 윤리 · 공감의 서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03-227면.

김명희,「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 웹툰〈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의 감정생태계」,『기억과전망』3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55-101면.

김미정,「미끄러지고, 다른 힘을 만들고, 연결되는 것들 : 2020년에 생각하는 '5월 광주'와 문학의 방법들」,『문학들』59호, 2020, 24-40면.

김혜경,「최윤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중편,「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비교한국학』16(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225-251면.

배하은,「재현 너머의 증언-1980년대 임철우, 최윤 소설의 5.18증언-재현 문제에 관하여」,『상허학보』50호, 상허학회, 2017, 491-541면.

유홍주,「오월 소설의 트라우마 유형과 문학적 치유 방안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 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61-387면.

이영재,「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민주주의와 인권』12(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121-151면.

_____,「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정신문화연구』38(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21-152면.

이재승,「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민주법학』6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05-148면.

이혜령,「쓰여진 혹은 유예된 광기」,『작가세계』15(1), 2003, 111-123면.

정근식,「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경제와사회』 126호, 비판사회학회, 2020, 12-46면.

조회경,「최윤 소설의 전복성과 윤리성의 관계」,『우리문학연구』56호, 우리문학회, 2017, 565-587면.

차원현,「5.18과 한국소설」,『한국현대문학연구』31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439-467면.

_____,「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민족문학사연구』5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172-193면.

홍원표,「정치적 책임과 용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이해」,『21세기정치학회보』 18(2), 21세기정치학회, 2008, 1-21면.

George Steiner, ""Tragedy," Reconsidered", New Literary History, Vol.30, no.1 (winter 2004) : 1-15.

2. 단행본
강동호,「해설: 희망을 증언하는 언어들의 역사」, 최윤,『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8.
권김현영,「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김병익,「해설: 고통의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움의 고통 - 최윤의 소설들」,『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
김정한,「1990년대 전향 담론과 반지성주의」,『비혁명의 시대 :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김 항,「국가의 적이란 무엇인가」,『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김형중,「세 겹의 저주」(2000),『켄타우로스의 비평』, 문학동네, 2004.
김형중,「총과 노래2」,『후르비네크의 혀』,문학과지성사, 2016.
최 윤,『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 문학동네, 1994.
최 윤,「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8.
도미야마 이치로,『시작의 앎』, 심정명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0.
스탠리 코언,『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옮김, 창비, 2009.
시몬 비젠탈,『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 박중서 옮김, 뜨인돌, 2019.
알베르 카뮈,『시지프 신화』, 김화영 옮김, 민음사, 2016,
에티엔느 발리바르,「『신학정치론』: 민주주의 선언」,『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2014.
지그문트 프로이트,「자아와 이드」,『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박찬부 외 옮김, 열린책들, 2004.
칼 야스퍼스,「비극론」,『철학학교/비극론/철학입문/위대한 철학자들』, 전양범 옮김, 동서문화사, 2009.
칼 야스퍼스,『죄의 문제』, 이재승 옮김, 앨피, 2014.
프레모 레비,「회색지대」,『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옮김, 돌배게, 2014.
필립 라쿠-라바르트, 장-뤽 낭시,『무대』, 조만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0.
한나 아렌트,『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진리와 방법1』, 이길우 외 옮김, 문학동네, 2012.

**<Abstract>**

# Transitional Justice and Tragedy Reread of *There a Petal Silently Fall*

Yang, Soonmo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function that literature can uniquely perform in relation to the issue of establishing new social justice after democratization. The issue of establishing a new social justice, called ‘transitional justice’, is, in short, stalled in a rarely-agreed dichotomy such as damage/infliction, retaliation/forgiveness in the face of the task of “past liquidation.” More than 30 years after democratization, transitional justice aims for “restorative justice” under the keyword “harmony,” but today justice falls short of “retaliatory justice” considering the tears of victims who still cry for “truth.” This paper examines a form of 'personal' level punishment, forgiveness, and responsibility that will be newly mediated between these two definitions, among the aporia that exists between 'retaliatory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within the above community level. Prior to the task of establishing a definition of “social level” established in constant encounters with history, when the “individual attitud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ing in that task is carefully considered, this can be a preliminary step beyond the dichotomous deadlock of the existing transitional justice. By rereading Choi Yoon's novel, the paper examines a particular process in which an individual faces these honestly and 'owns' them as his own, with regard to the sense of debt and excessive feelings of self in his post-violence life.

This paper argues that the above process, which can be called the attitude of 'tragedy', can perform one instrumental function for the new phase of transitional justice today, thereby proving a literary unique function in social justice establishment problems.

key words: Transitional Justice, Retaliatory Justice, Restorative Justice, Tragedy, *There a Petal Silently Fall*

투 고 일 : 2021년 2월 22일 심 사 일 : 2021년 2월 23일–3월 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1년 3월 23일